

문제 1.

제시문 (나)의 어휘는 현대에 발생한 신조어들이다. 제시문에 주어진 어휘에는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단어가 있기도 하고, 단순히 언어를 소리 나는 데로 적거나 초성만 따서 사용한 단어가 있다.

전자는 현대에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를 잘 표현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창조적 측면을 잘 활용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제시문 (나)에서 ‘손주병’부터 ‘등골 백팩’까지가 해당한다. 이 단어들은 기존의 단어들로는 크게 그 의미가 와 닿지 않던 의미를 유행어와 기존의 단어들을 등을 잘 활용하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최근에는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활용되기도 하면서 관용표현의 일환으로써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물론 사회 변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둔감한 중년층, 노년층과의 세대 차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도 현대의 문제를 잘 파악하여 충분히 유사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조어의 사용은 사회에 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통신언어 등으로 불리는 후자이다. 제시문 (나)에서 ‘뽕샴질’부터 ‘머찌근’에 해당하며, 이 단어들은 국어 파괴의 주범으로도 여겨진다. 위에 제시된 단어들은 주로 채팅, SNS 등의 보급이 활성화되며 발생했다. 단어의 초성을 따거나, 소리 나는 데로 사용하거나 과도한 생략을 통해 신조어를 생성한다. 이 단어들은 국어의 규범을 파괴하고 세대 간 의사소통은 물론 세대 내 의사소통까지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언어의 올바른 표기 및 사용을 저해하여 언어 교육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빠른 정보가 공유되고, 짧은 시간에도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통신언어의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가 올바른 언어사용을 하면 속도가 조금은 늦춰질 것이고, 빠른 속도에 맞춘 언어의 의도적 파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언어 사용이 활성화되면 언어 교정을 위한 처리비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의 낭비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조어는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 2.

제시문 (라)에서 A국가와 B국가의 2008년 사법시험에서 여성의 지원율은 38%로 같았다. 그러나 A국가는 1999년 약 17%에서 2배 이상 점진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주어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B국가는 10년간의 데이터는 없으나 1999년도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62:38이었다는 점을 통해 10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A국가는 점점 사법시험의 여성 지원율이 높아졌다는 점, 사법시험이 고등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난 10년간 여성의 사회진출, 고등교육 이수 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시문 (라)에서 미국의 일부 주가 마리화나를 주민 투표를 통해 합법화시켰으며, 이런 분위기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려는 움직임과 비교할 수 있다. 마리화나를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정감보다 마리화나를 피고자 하는 각 개인의 자유권이 법익보다 더 크다는 판단을 했으므로 이것이 합법화되는 데 성공했다고 보며, 이는 진보적으로 자유를 위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인 일례이다. A국가의 여성은 아마 B국가의 여성들에 비해 사회적 지위와 사회 참여율이 낮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회 참여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고등교육 이수율, 사회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했을 것이다.

반면 B국가는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이미 1999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8년의 여성의 사법시험 응시율이 그대로임을 통해 이제는 보수적으로 사회 유지를 위한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제시문 (다)의 한국과 네덜란드와 비교할 수 있다. 보수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마약류 일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한국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처음에는 꽤 진보적인 상태였다가 점차 보수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은 네덜란드의 모습과 연결할 수 있다. B국가는 이 전에 이미 여성들의 상대적 사회적 지위, 사회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이뤄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태에 만족을 하고 사회적으로 성적 불평등이 해소되었다는 생각을 통해 사회 참여를 더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변모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